

전남

# 나주시의회-여성단체 신경전

## ‘여성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나주시의회가 제2회 추경경정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비와 도비가 배정된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취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농촌여성 일자리 지원대상자’를 공모, 나주시를 비롯한 5개 권역 9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국비와 도비 각각 4000여만원에 시비를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1억 2000여만원으로 나주시가 지난 7일 관련 사업비를 제2회 추경경정 예산에 반영, 예산 심의가 이뤄졌으나 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의 표면적인 삭감이유는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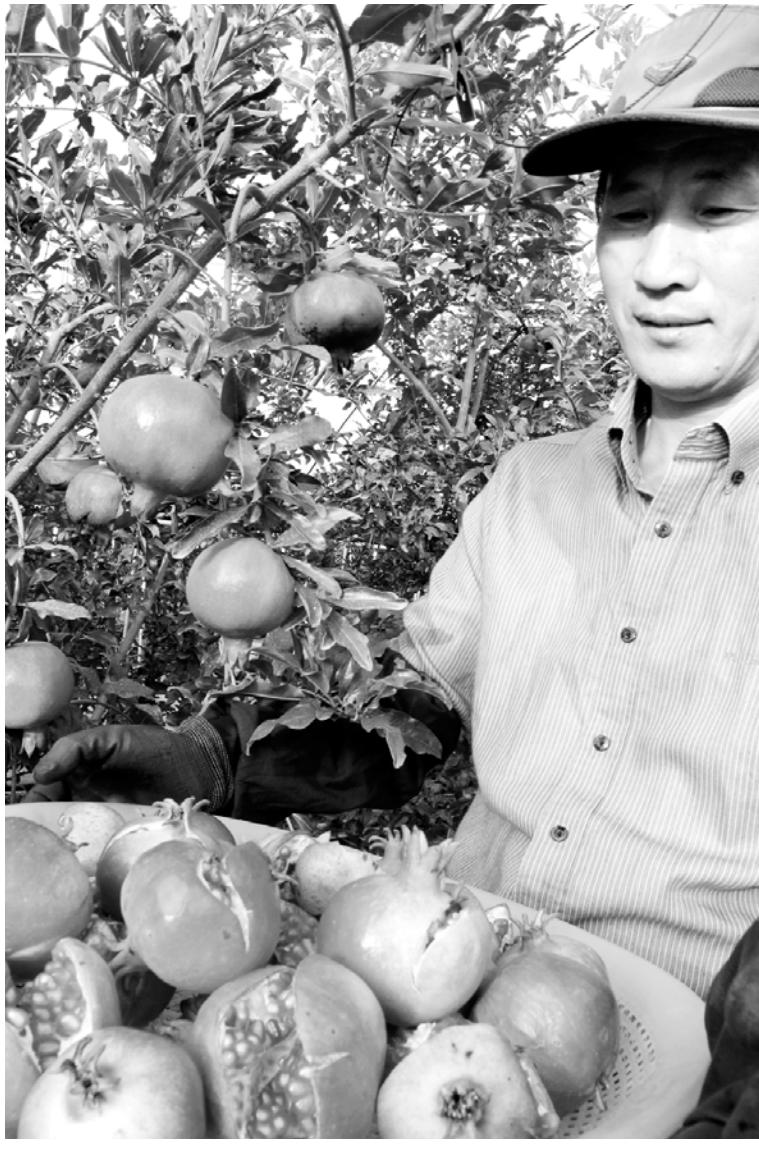
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나주시가 확보된 것처럼 의원들을 기만하는 등 해당 사업의 추진절차나 과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과 공직 내부에서는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의 대표자인 C씨에게 여성단체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우려가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 여성의 원인 B씨가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관내 여성단체의 주도권을 둘러싼 칠전으로 내비치지고 있다.

A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예산만큼은 살리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삭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가을 햇살로 키웠습니다”

회순군 도곡면 한 농장에서 석류수확이 한창이다. 석류는 여성 호르몬 성분과 아미노산·비타민·칼륨 등이 다양 함유돼 있다.

강진군은 내년부터 수매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보리 대체작물로 ‘쌀귀리’를 본격 재배한다.

쌀귀리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등과 같이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이다. 통곡물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슈퍼푸드(super food)로 동맥경화·심장병·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굴지의 양곡 유통업체인 두보식품(주)과 함께 쌀귀리 전량수매 계약을 맺고 올 겨울 100㏊ 면적에 쌀귀리 시범 재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쌀귀리 계약재배의 지속추진을 위해 ▲2012년 쌀귀리(조양) 품종 실시권 구입 ▲토성별 파종양식에 따른 재배실증 연구 ▲종자 순도 향상을 위한 쌀귀리 종자(원종) 채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최근 쌀귀리



계약재배 참여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의 쌀귀리 연구자인 농촌진흥청 한옥규 박사를 초청해 고 품질 귀리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한옥규 박사는 “강진은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 월동은 유리하나, 분열기(分蘖期)에 주·야간 온도차이가 적어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억제재배 등 강진군 맞춤형 재배기술을 개발한다면 명문 강진군이 쌀귀리 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사통팔달 장성 ‘귀농·귀촌 1번지’

지원책 다양·광주 인접 매력…4년간 277세대



장성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주목 받고 있다.

장성군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213세대에 411명이 장성군으로 귀농·귀촌했다”고 9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1

세대 ▲2009년 43세대 ▲2010년 64세대 ▲2011년 현재 149세대이며, ‘베이비붐 세대’인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장성군의 귀농인은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